

셀예배 교안

열왕기상 13:1-10 | 말씀이 사건이 되다 (3)

다함교회 | 열왕기상 강해 16 | 진행 시간 약 60~75분

인도자 준비 안내

- 본 교안은 주일 설교 「말씀이 사건이 되다(3)」의 후속 나눔을 위한 자료입니다. 셀 상황에 따라 깊이 나눔 항목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메시지 —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현실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에서 종교를 만들어 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결정하시고 굳어진 마음에도 회개의 문을 열어 두십니다.
- 인도자는 모임 전에 열왕기상 12:25-33과 13:1-10, 그리고 열왕기하 23:15-20을 반드시 미리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심판 본문이지만 정죄로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마른 손을 회복시키신 자비와 요시야보다 크신 그리스도로 착지시켜 주십시오.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A4 백지(각 1장, 마지막 적용 활동용).

셀예배 순서

- 찬송 — 새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10분)
- 여는 기도 — 인도자 (5분)
- 마음 열기 나눔 (10분)
- 말씀 봉독 — 열왕기상 13:1-10 (5분)
- 본문 해설 (20분)
- 나눔 질문 (15분)
- 적용 활동 — “내가 세운 벤엘의 제단” (10분)
- 합심 기도 및 마무리 (5분)

9. 결단 찬송 — 새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 마음 열기 (10분)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니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느끼게 하신 작은 순간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나에게 “진짜와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것”에 속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건, 정보, 관계 무엇 이든 좋습니다)

※ 말씀 봉독 — 열왕기상 13장 1-10절을 돌아가며 한 절씩 소리 내어 읽습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23장 15-18절을 인도자가 읽어 줍니다.

2. 본문 해설 (20분)

(1) 두려움이 만든 종교 (왕상 12:26-27)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면 그 마음이 남 유다로 돌아설까 염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지키실 텐데, 그는 왕위를 자기 손으로 지키려 했습니다.

여기서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뒤집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 “비슷한 것”이 가장 무서운 왜곡입니다 (12:28-33)

두려움의 결과가 벤엘과 단의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거기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원하는 모든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여덟째 달에 절기를 제정했습니다.

그의 종교에는 제단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뿐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은 금방 분별되지만, 비슷한 것은 분별되지 않은 채 자리를 잡습니다.

■ 예화

화폐 감별 전문가는 위조지폐를 연구하지 않고 진짜 지폐만 수만 번 만진다고 합니다. 손끝이 진짜를 기억하면 가짜는 만지는 순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이기는 길은 거짓의 목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손끝이 기억할 때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3) 제단아 제단아 (13:1-3)

유다에서 올라온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왕을 향해 외치지 않았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하고 제단을 불렀습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그가 만든 거짓 예배 체계를 정면으로 겨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요시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은 남북 분열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북과 남이 동일하게 타락했음을 보여 줄 뿐입니다. 문제는 분열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4) 300년 뒤에 일어난 일 (왕하 23:15-18)

약 300년이 지나 요시아 왕이 벤엘의 제단을 헐고 산당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을 발견하고 그 뼈를 그대로 두게 합니다. 이름도 남지 않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3세기를 건너뛰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 정리

핵심 :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를 결정합니다.

(5) 손은 나왔으나 마음은 굳었습니다 (4-10절, 33절)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라” 하자 그 손이 말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손이 즉시 회복됩니다. 심판 중에도 회개의 문을 열어 두신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였습니다. 은혜를 겪고도 그것을 거래로 바꾼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13:33). 은혜를 받고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6) 복음으로 읽기 — 요시아보다 크신 이

요시아는 벤엘의 제단을 헐었지만 그의 개혁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개혁으로는 인간의 제단을 완전히 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보다 크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

내셨습니다. 요시야는 다른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벨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위에서 열납됩니다.

3. 나눔 질문 (15분)

※ 관찰 → 해석 → 적용 순서로 진행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②④⑤를 우선 다룹니다.

① 관찰 — 두려움이 만든 종교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이었는데도 왜 두려워했을까요(12:26-27)?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② 관찰 — 없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종교에 있던 것들을 본문에서 모두 찾아봅시다(12:28-33). 그 안에 없었던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③ 해석 — 비슷한 것의 위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형식은 다 갖추었으나 근거가 빠져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전혀 다른 것보다 비슷한 것이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 해석 — 말씀이 사건이 되다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요시야의 이름을 불렀고, 약 300년 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현실”이라는 말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⑤ 적용 — 손은 나왔으나 마음은 굳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마른 손이 회복되는 은혜를 겪고도 회개 대신 예물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7절). 은혜를 받고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⑥ 복음 — 제사장이며 제물이신 분

요시야의 개혁조차 실패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왜 완전합니까? 내 예배가 나의 정성 위에 서 있는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위에 서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적용 활동 — “내가 세운 벤엘의 제단” (10분)

나누어 준 백지를 세로로 세 칸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남에게 보일 것이 아니니 정직하게 적습니다.

1. 윗칸 — 내가 몰래 세워 둔 “벤엘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안전과 유익을 섬기고 있는 영역을 한 가지만 적습니다.
2. 가운데칸 — 내가 지금 “현실”이라고 부르며 눌러 있는 상황을 적고, 그 아래에 그 상황 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습니다.
3. 아랫칸 —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열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적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붙들 한 가지 결단을 적어 셀원들 앞에서 말합니다.

작성한 종이는 성경 사이에 끼워 두고, 한 주간 매일 「주간묵상집」의 본문을 읽으며 그 결단을 다시 확인합니다. 다음 셀모임 첫 순서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5. 합심 기도 제목

-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한 현실로 믿게 하소서.
- 은혜를 받고도 굳어지는 마음을 깨뜨리시고, 오늘 주신 기회를 붙들게 하소서.

※ 이어서 셀 지체들의 개인 기도제목과 다함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6. 인도자 마무리 기도

말씀으로 역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종교가 어떻게 한 나라를 무너뜨렸는지 보았습니다. 주께서 세우셨으면 주께서 지키실 줄 믿지 못하고, 제 손으로 제 자리를 지키려 제단을 쌓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식은 다 갖추었으나 주의 명령이 빠져 있던 저희의 예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슷한 것에 속지 않도록 저희 손끝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장 강력한 현실로 믿게 하옵소서.

마른 손을 회복시키시고도 돌이키지 않은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열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붙들게 하시고, 저희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신 참 제사장 되신 주님만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지체들과 다함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함교회 셀예배 교안 · 열왕기상 강해 16 · 왕상 13:1-10